

2000 겨울호

스물 일곱

보관용



백혈병어린이후원회

#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제일생명의 집 가을소풍 기념으로 찰칵-



<http://childcancer.welfare.net>



# 몇 점짜리 21세기를 만드시겠습니까?



백혈병어린이후원회  
회장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

작년 이맘때는 IMF를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들이 있었습니다. 21세기에 대한 보다 밝은 청사진도 그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그때보다 더 어려워진 듯한 국내의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1-2년전 백혈병이나 소아암을 막 진단받은 어린이들과 그 가족을 접할 때면 IMF경제위기에 따라 어쩔 그리도 어려운 사연들이 많았는지 정말 저희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즘에도 그때와 같은 상황이 늘어나는 것 같아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IMF를 지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니 고용보험이니 기초생계와 소득을 보장하려는 복지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의 가족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어린이들이 다시는 많아지지 않았으면 하는데 말입니다.

후원자님들의 직장과 가정에는 별고 없으신지요. 석달에 한번뿐이지만 저희 후원회의 소식을 담은 소식지가 반송되어 오면 가슴이 찡렁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지신 건 아닌지 혹시 퇴직하시게 된 것은 아닌지..... 후원자님들께는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영향이 덜 미쳤으면 하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의약분업으로 인한 치료의 차질과 지역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쉼터 등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며칠 안남은 2000년에 점수를 후하게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하지만 2000년까지는 20세기였고, 21세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노력은 우리들의 것, 결과는 하늘의 몫." 몇 점 짜리의 21세기를 준비하시겠습니까?



# 병실에서 온 편지

LEO 7.23-8.23 후원회분들께 000  
안녕하세요?  
저는 경애랍니다.

CANCER 6.21-7.20 이렇게 힘들게 치료 받는 아이들에게  
도움이되고, 저에게도 너무나 큰 도움이  
되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주셔서 정말 열심히  
치료 받을게요~!

VIRGO 8.23-9.22 전체 요즘에는 함암 치료 약 때문에  
눈이 너무 나빠져서 수술을 해야 하네요~!

LIBRA 9.23-10.23 이제 치료 어느정도 해드나! 생각해주는데  
남녀도 또 산이네요. T.T

TAURUS 4.21-5.21 하지만 저를 살리기 위해 아끼고, 도와주세요.  
밤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대 "사랑이 많은 푸른 무지마음"  
후원회분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해나  
꼭! 강하게 마음먹고, 꼭! 나쁜 병들과  
싸워서 이깁게요!

CAPRICORN 12.22-1.20 꼭! 살아서 배플줄 아는  
귀한 경애가 되게요~♡

PISCES 2.19-3.20 그림 꼭엄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AQUARIUS 1.21-2.18 건강이 최고야!!! ^^

SCORPIO 10.23-11.21 2000. 10.13. 줌  
-경애 올림-

서울중앙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애는 16세의 어여쁜 숙녀랍니다.

# 새생명통장

후원회는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항암치료비를 지원하는 새생명통장사업,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를 지원하는 천사백지원사업, 입원진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꾸준한 외래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과정을 돕는 새생명통장 사업을 소개합니다.

## ♡새생명통장 사업이란?

새생명통장 사업은 항암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와 재생불량성빈혈 어린이(단, 만 15세 미만)에 진단받은 자에 한함)에게 외래치료비 10만원을 매달 지원하여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소아암 어린이는 항암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생불량성빈혈 어린이는 이식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 36개월간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과 결정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하거나 병원 의료진 및 사회복지사를 통해 의뢰되면, 소정의 서류심사와 면담이 이루어지고 기관의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재산관련 :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토지가격 확인원 첨부) /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미과세증명서
- ② 소득관련 : 소득금액증명원 / 갑종근로소득납세증명서 / 사실증명원
- ③ 기타서류 : 주치의 추천서, 의료보호수첩 사본, 자동차 등록증, 부채증명서 등

## ♡사후 관리

후원회는 매월 보호자와의 연락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며 3개월마다 병원 주치의로부터 치료상태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 ♡후원단체와 지원현황

현재 새생명통장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는 매월 총 59명이며 후원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원 단체	후원 방법	후원시작
LG화재 새마음회	LG화재 여직원회인 새마음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내는 회비의 일부를 적립하여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1992년 5월
기업은행노동조합	기업은행노동조합 조합원의 월급 중 1000원 이하의 끝전을 모아 후원합니다.	1996년 6월
삼성SDS 푸른마을봉사클럽	봉사클럽에 속한 30명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 5월
하나은행노동조합	하나은행의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 중 일부를 적립하여 후원합니다.	1995년 2월

※ 10만원씩 꾸준히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단체나 기업체는 후원회로 문의해 주십시오

## 새생명통장 지원을 받고 있는 영규의 편지입니다.

저는 림프백혈구 항암을 받으신지 3년이 넘었  
습니다. 코스때마다 부작용으로 인해 항암이  
연기되어 앞으로 6개월을 더 받아야  
하지만 꼭 완치가 되어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장사를  
그만둔 엄마를 볼때 죄송스럽고 처음부터  
치료를 받을수있게 도와주시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하며 완치가  
되어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치료를 받아 다른 아이들에게  
베필수 있도록 후원하겠습니다.

아픈 우리들에게 후원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〇

2000년 11월 17일

13살 소년

이 영 규 올림

13세 소년 영규는 서울대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흥미있는 소재거리 하나



상운씨는 자신의 경험을 '흥미있는 소재거리'라고 표현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기에 다시는 떠올리기조차 싫을텐데 그는 너무도 담담한 모습이었다.

**KCLF** 인터뷰 제의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상운**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까지는 차례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제 진단명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사무국에 오기 전에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인터뷰에 대한 대비를 했어요.

**KCLF**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먼저 치료과정은 어땠는지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상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엔 감기인줄 알았죠. 한달 동안 감기약을 먹고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어서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검사결과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제 상태가 심각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저 간단한 수술이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척수검사와 골수검사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힘들었죠. 척수검사를 할 때 바늘이 들어가지 않아서 13번을 찌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약간 비만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치료받으면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죠. 골수검사는 척수검사보다 더 아파서 느낌조차 없었어요. 그

냥 멍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참! 저 죽을 고비도 넘긴 적 있었어요. 진단받고 5개월쯤 지나서 부작용이 났었어요.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장을 마비시켰대요. 일주일동안 40도의 고열로 고생했었죠.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각오를 하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무사히 고비를 넘기고 2년 후 치료를 마쳤답니다.

**KCLF**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장 민감하다는 사춘기때 치료와 학교생활을 병행했는데, 어떤 것이 힘들었던가요? 혹시, 항암치료로 인한 외모의 변화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았나요?

**상운** 진단초기인 중학교 2학년 때에만 입원치료를 받았었기 때문에 유급없이 학교생활을 마칠 수 있었죠. 학교생활은 정말 편했어요. 친구들이 힘든 일 있으면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줬거든요. 체육시간에 주변대신 교실을 지키고, 단체로 벌받을 때도 제외시켜주고... 그래서인지 지금도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다 나왔는지부터 물어요. 고마운 친구들이죠. 외모의 변화요? 머리가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어요. 모자를 쓰고 다녔었는데, 그냥 벗고 다니는 것도 재미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 이 상 운

1977년 생

1991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

1993년 치료종결

2000년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현 재 김인길 세무사무소에서 근무

**KCLF** 지금 외모를 봐서는 투병의 흔적이 없어요. 대학 친구들은 상운씨가 아팠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상 운** 모습을 봐서는 잘 몰라요. 제가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가끔 여자친구들에게 동정표를 얻기 위해 아픈 경험을 이용하기도 하죠. 한번은 수업 중에 과거의 경험을 적어서 내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저는 투병일기를 써서 냈죠. 발표하는 시간에는 결석을 했었는데, 친구의 말에 의하면 교수님께서 제 글을 읽었는데, 교실이 울음바다가 되었대요. 그 후 사람들이 일부러 아는 척하고, 친근하게 대하더라구요. 흥미있는 소재거리 하나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KCLF**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시네요?

**상 운** 사회복지기관 10군데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의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저를 원하는 기관이 없더라구요. 지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2001년에 시험이 있거든요. 관악구청에 접수했는데 지원자가 많다더군요. 시험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로 외숙모가 세무사로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려고요. 물론 공부하는 시간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생활이 바빠야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서요.

**KCLF** 내년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되어있는 상운씨의 모습을 기대할게요. 마지막으로 환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상 운** 항상 즐거운 일들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입원치료를 하는 동안은 굉장히 피곤하고 고통스럽거든요. 저는 힘들 때마다 자기 전에 자기 최면을 걸었어요. '내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피자를 먹을 수 있을꺼야! 이렇게 중얼거리면 조금이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 ♥나눔의 소식♥

어느날 중년의 신사 한분이 후원회 사무국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 명호도 백혈병으로 4년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요. 한번의 재발없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도 고마운데, 이번에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가장 큰 액수인 194만원이랍니다. 너무나 값진 돈이기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싶어 명호에게 물었습니다. 명호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위해 쓰고 싶어했죠. 명호의 생각처럼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장학금 액수만큼 더해서 이곳으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시며 384만원을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뜻깊은 후원금이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치료를 받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견한데,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현재 투병중인 소아암 아이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것입니다.

# 우체국 희사랑의 집

## 서울 우체국 희사랑의 집

서울 우체국 희사랑의 집이 새롭게 문을 열고 환아와 가족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전한 곳은 최근 신축된 용문동 우체국 2층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전성미>



## 광주 우체국 희사랑의 집

*We ♥ Pizza!!*

'피자의 날' 행사가 매월 첫째주 목요일마다 열립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 행사를 위해 하임피자 총장로점 이성룡 점장님께서 피자과 음료수, 샐러드를 후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남대학병원에서 외래치료 중인 많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환호속에 준비된 피자가 동이 나서 추가주문을 하기도 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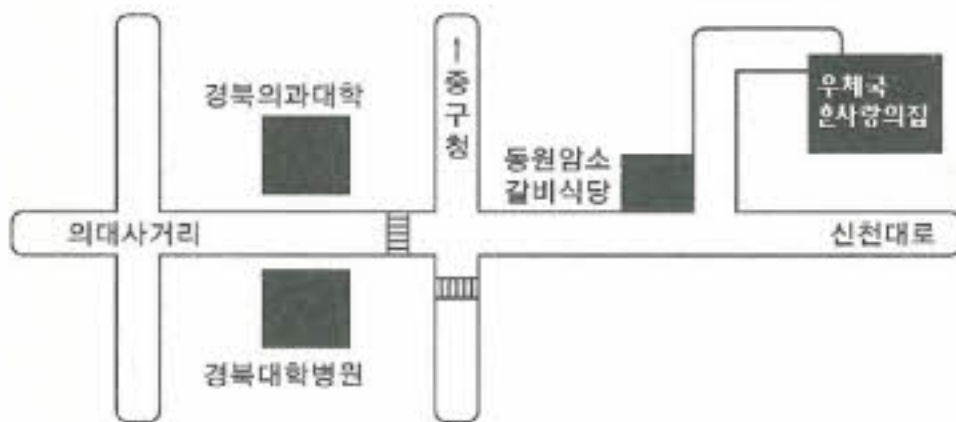
<담당 사회복지사 정 옥>



## 대구 우체국 희사랑의 집

병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양옥 2층집을 계약하고 개소를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번 겨울은 덜 추울거라는 소식이 조금이나마 안심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대구·경북지역의 환아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하정연>



## 부산 우체국 희사랑의 집

동아대학병원과 부산대학병원에서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인 동대신동에 개소될 예정으로, 고신의료원에서도 버스로 한번에 오실 수 있습니다. 12월 말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박미주>





#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후원물품(2000. 9. 1. ~ 2000. 11. 30.)

품명	수량	후원자	사용장소
후원금	44,490	하이마트	광주
슬리퍼	10	서울대병원	"
인형	58	"	"
돌리그림접기 퍼즐	2	"	"
돌리아이큐 퍼즐	2	"	"
돌리기차놀이	1	"	"
돌리모래·목욕놀이	4	"	"
돌리열음벌대 모험	1	"	"
돌리쇼핑카드	2	"	"
미끄럼틀	1	"	"
의자	14	"	"
책상	7	"	"
철판	1	"	"
공	2	"	"
볼풀	1	"	"
사진배경	1	"	"
도서	62	김하신	"
물티슈	3	진선영	"
냄비	5	신안례	대구예정
플라스틱그릇	3	"	"
식기건조기	1	윤종우	"
전자렌지	1	한상금	"
한글매트	1	"	"
아동용목도리	30	"	"
도서	27	진승림	"

## ♡우체국 혼사랑의 집 신규 후원자

- 서울 / 김순의 김정민 서울치과기증소 송용준  
안희용 이성태 최정화
- 광주 / 황만석 한미진
- 대구 / 조성국
- 부산 / 강보선 김중배

## ♡우체국 혼사랑의 집 후원회원 모집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우체국 혼사랑의 집과 함께 할 따뜻한 마음의 후원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후원금액 /  월1천원(어린이회원)  월5천원  
 월1만원  월2만원  
 년회원(5만원 이상)

- 후원지역 /  서울  광주  대구  부산

※ 우체국 혼사랑의 집 회원은 지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무국 (02) 766-7671~2  
우체국 혼사랑의 집(서울) (02) 704-8310  
우체국 혼사랑의 집(광주) (062) 234-5528

## ♡후원물품을 기증 받습니다.

복사기, 벽거울, 보온밥솥, 전자렌지, 자외선 소독기, 세탁건조대, 청소기, 세탁기, 에어컨, 식기건조기, 프린터, 냉장고, 팩스, 컴퓨터, CD카세트, 선풍기, 식기set, 주방용품set, 교육용비디오, 도서, 세제·휴지 등 생필품, 쌀, 온풍기.

# 자원봉사자의 흔적들

3개월동안 사무국과 한양대·서울대 병원에서 수고하신 자원봉사자들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남긴 한마디입니다.

선생님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선생님이 앞으로 기억할 친구들은 많은데.  
민재, 동진, 예랑...

너희들 기억속에 항상 남아있는 선생님이면 좋겠구나.  
- 한양대 병원 현 지혜 -

우리 친구들 빨리 나오세요.  
같이 밖에서 뛰어놀아요. ^^  
그리고 예랑이랑 동관이  
밥 열심히 먹고,  
민재도 잘 다음에 선생님께  
종이접기 가르쳐주게요.

동진이랑 하나랑도 건강해!!  
- 한양대 병원 강혜연 -

같이 못한 상에서, 민정씨 부임이요,  
나도 금세로 잘 쓰실걸텐데,  
활거한 분기엔 항상 구르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어린이들을 도와주세요.  
이제 저의 이름은 삭제되었으니, 정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kocric@hanamk.net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기쁘습니다.  
힘내서 일하길 도와주세요!  
- 자원봉사자 지현 -



항상 밝고 환한 모습의  
선생님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도움이  
되었었기를 바랍니다!!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  
Fighting!!  
- 자원봉사자 현경 -

항상 밝고 따뜻한 아이들의 모습.  
겉에 드러나는 마음이 항상 따뜻했습니다.  
민준, 상연, 태홍은 아바 잊어 못할  
친구들이예요.  
모든 아이들의 강해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웃는 선생님들...  
배우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 건강하세요.  
- 자원봉사자 은주 -

제가 도움이 될수 있어서 행복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빨리빨리  
건강해진다면 좋겠습니다.  
😊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 자원봉사자 신희 -

눈에 보이지는 않는 사람들이  
살아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남이 모르는 곳에서 꾸준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사회가 잘 돌아가네요.  
착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 이어 자분, 지강 -

안녕! 친구들...  
예랑이랑, 동관이랑, 동진이랑,  
민재랑, 세진이..  
선생님이 누르지 않아요?  
같이 한양대 영원 동아방에서  
우리 친구들 빨리 모두  
모두 나아서 퇴원하길 바래.  
항상 건강해!!!

# 한뜻 후원금! 나는 이렇게 납부한다!!



하나, 사이버시대엔 '인터넷 납부가 딱!

- ① <http://www.giro.or.kr>에 접속합니다.
- ② 인터넷 지로 이용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신 분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log in)을 합니다.
- ③ 메뉴중, '지로장표 납부'를 클릭합니다.
- ④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지로번호 '7607451'을 입력합니다.
- ⑤ 고객조회번호(사이트에서 부여한 후원자번호 8자리)와 후원금액을 입력합니다.  
납부자 확인정보에 '한뜻-회원번호'를 입력합니다.
- ⑥ 출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를 클릭합니다.
- ⑦ 후원금은 통장에서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 두울, 난~ 간편하게 산다! - 은행 자동이체

국민, 기업, 조흥, 농협, 우체국 통장을 가지고 계신 후원자님은 해당 은행에서 '한뜻 후원금 계좌'로 계좌간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타은행 이체시 수수료 부담이 큼.)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후, 이종으로 지로가 발송되지 않도록 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한뜻후원금 계좌> 예금주 : 백혈병어린이후원회

국 민 001-01-2353-890    기 업 090-000260-04-015    조 흥 367-03-004350  
우체국 012989-01-000154    농 협 029-01-176943

## 세엣, 매달 송금하는 재미가 솔솔~ - 지로입금

지로 입금은 후원회에서 매달 초에 보내드리는 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한뜻후원자 소식

감사합니다.

새로운 후원자(2000. 9. 1. ~ 2000. 11. 30.)

강민우 고은주 김경화 김미경 김수연 김주환 김찬호 김충국 김현준 남우현 노승아 두인정 민경호 박성희 박자은  
서재현 손민정 손은혜 신사임 여영주 이규열 이수경 이양건 이정선 이준승 임은진 전현배 최윤성 최정화 하이콤정보통신

한뜻 후원자는 소아암어린이들을 위한 정서·정보지원사업을 지원하는 후원자입니다.

금액은 제한 없으며 지로와 자동이체(국민, 조흥, 농협, 기업은행, 우체국)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후원회 사무국에서 받습니다. (☎ 02-766-7671)

\* 한뜻소식란에 실을 한뜻후원자님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 시 등 형식 및 소재 자유)

# 사랑이 모이는 곳



인터넷 광고업체인 (주)데이터닉스(www.datanix.com)는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얻어진 후원금 200만원을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후원금은 9월 18일 광주 '우체국 혼사랑의 집'에서 조재현 어린이(전남대학병원)에게 전해졌습니다.



삼성SDS 푸른마을 봉사클럽과 후원회는 11월 11일 서울대학병원 어린이학교에서 '스타 크래프트'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다운(남, 13)을 포함한 12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장경국(남, 14)어린이가 6승 1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베베타운(www.bebetown.com)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백혈병어린이돕기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 얻어진 후원금 1,000만원을 후원회로 전달하였습니다. 후원금은 유제민, 김경언(이상 삼성서울병원), 박철순, 임승현(이상 가톨릭성모병원) 어린이에게 소중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63시티 별관 3층에서는 63시티 혼사랑회(회장 김미연)가 주최한 헌혈행사가 있었습니다. 여직원회는 이 행사로 모은 헌혈증 73매를 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한국 루슨트 테크놀로지스(주) 신규통신사업부에서는 300만원의 후원금을 후원회로 전달하였습니다. 후원금은 9월 7일 정희승 어린이(가톨릭성모병원)에게 전달되었고 희승이의 제대혈이식수술비로 소중하게 쓰여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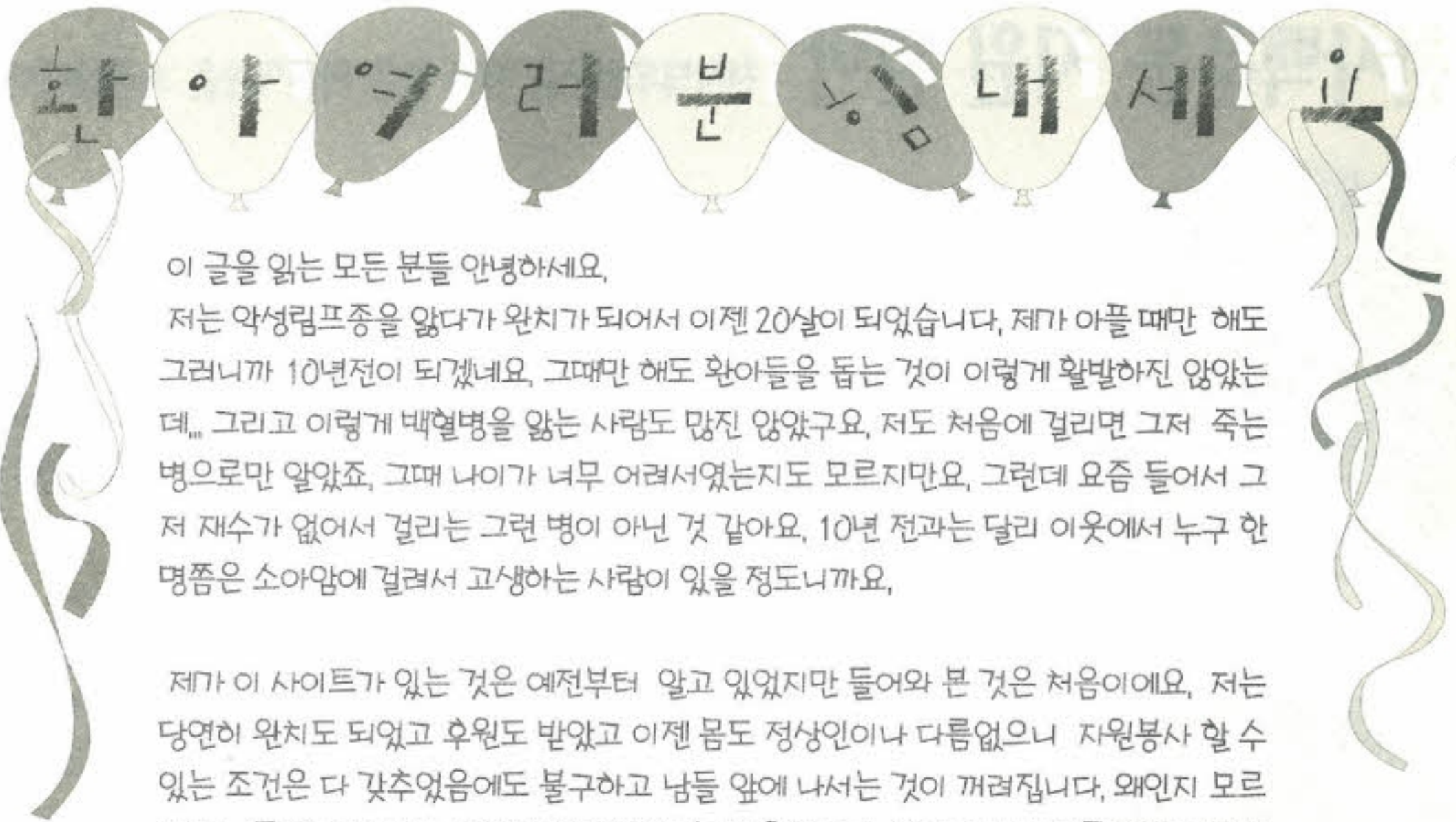


'헌혈증을 가져오시면, 맛좋은 갈비 3인분을 드립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다는 양사장님은 TV에서 소아암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을 위해 헌혈증 모으기 운동을 전개, 1,000장의 헌혈증을 모았다고 합니다. 고기와 바꾼 헌혈증 1,000장은 9월 22일 광진구청장실에서 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주)태평양에서는 연말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350매의 헌혈증을 후원회로 전달하였습니다.

## 토막소식

1. (사)벤처기업협회에서는 벤처기업과 공익단체들과의 자매결연사업인 '나눔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메디슨으로부터 3,000만원, (주)핸디소프트로부터 1,000만원을 지원받아 후원회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은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2. 서화산방에서는 11월 1일 '백혈병어린이후원 친필 시연 전시회' 행사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1,018,000원을 후원회로 전달하였습니다.
3. 11월 9일 제일생명의 집 가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김동빈(서울대학병원)외 28명의 어린이와 어머니들과 함께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표지사진참조)
4. 대구와 부산의 우체국 혼사랑의 집을 알차게 이끌어갈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었습니다.  
(대구 : 하정연 사회복지사, 부산 : 박미주 사회복지사)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악성림프종을 앓다가 완치가 되어서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만 해도 그러니까 10년전이 되겠네요, 그때만 해도 환아들을 돕는 것이 이렇게 활발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백혈병을 앓는 사람도 많진 않았구요, 저도 처음에 걸리면 그저 죽는 병으로만 알았죠,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려서였는지도 모르지만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저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그런 병이 아닌 것 같아요, 10년 전과는 달리 이웃에서 누구 한 명쯤은 소아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제가 이 사이트가 있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들어와 본 것은 처음이에요, 저는 당연히 완치도 되었고 후원도 받았고 이제 몸도 정상인이나 다름없으니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꺼려집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남들 앞에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었다는 것을 알리기 싫고, 이 사이트를 예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들어온 것도 예전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저는 '사랑의 리퀘스트'도 보지 않는 걸요, 그 이유는 제가 아팠던 그때가 생각나서입니다, 제가 너무 이기주의인가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아프지 않고 그저 남들에게 자원봉사자라는 명분으로 좋은 일 한다고 나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인지 모르지만 남들 앞에 완치환아라는 그런 입장으로 나서면 사람들의 눈이 의식됩니다,

외모로는 허약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골수검사와 척추검사를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꿋꿋하게 견뎌냈거든요, 저도 지금부터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될 수 있는 한 남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환아 여러분 힘내세요! 환아보호자분들도 힘내세요! 이렇게라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시원하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2000, 9, 15

## 천사백운동 지원 환자 천사백후원금을 지원 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 임호진 (남)

생년월일 : 1997. 3. 11.  
진 단 명 : 신경모세포종  
진단시기 : 2000. 3.  
치료병원 : 삼성서울병원

지난 10월 19일 자가골수이식을 마친 호진이는 힘든 치료과정을 이겨내고 11월 20일 무사히 퇴원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이식수술을 곳곳하게 이겨내는 모습은 의료진들을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모습의 호진이를 기대하겠습니다.



### 정연한 (남)

생년월일 : 1986. 6. 20.  
진 단 명 :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시기 : 2000. 2.  
치료병원 : 가톨릭성모병원

아프기 전까지 공부도, 운동도 잘하던 모범생이었다는 연한이. 무엇보다 봉사상을 받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알았던 연한이가 병원 치료로 학교를 휴학하면서 "후배들과 공부하면 나중에 내가 1등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여 부모님을 오�히려 위로하더라는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다행히도 13살 여동생 수진이와 골수가 일치하여 12월말 수진이의 골수를 이식받을 예정입니다.

착한 연한이와 오빠에게 새생명을 주는 수진이, 그리고 힘들게 수술을 준비하고 계신 연한이 부모님, 모두모두 힘내세요!



### 권오윤 (여)

생년월일 : 1996. 8. 9.  
진 단 명 : 신경모세포종 4기  
진 단 일 : 1999. 7.  
치료병원 : 삼성서울병원

진단받은 후 항암치료, 절제수술, 방사선치료를 받고 지난 4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오윤이는 현재 잔존종양이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재발가능성이 높아 2차 이식을 한번 더 해야합니다. 12월에 2차 이식을 받는 오윤이가 이번에도 치료과정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0. 11. 30. 현재)

자동이체 참여후원자 : 3,521명

자동이체 구좌 수 : 20,689 구좌

※ 온라인 일시입금 및 지로구좌는 제외된 현황입니다.

◆천사 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0. 9. 1.~2000. 11. 30.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경남은행(514-07-0175564 예금주:백혈병어린이후원회→타은행도 동일)

광주은행(200-107-315315)

기윤경 박민정

국민은행(031-01-0414-356)

김창하 김진순 서은주 신예리 양문경 이상선 이진화  
장소정 장정민 전용식 전해선 한미진 한유숙 홍병식

기업은행(090-000260-04-022)

조현원

농협(029-01-170940)

김미화 김옥희 김향진 박대순 안미라 양희춘 오홍엽  
윤승희 이강경 이원진 정영숙 황경엽

대구은행(004-05-179828-001)

권태용 지은희

부산은행(070-01-021379-8)

김진영 박현범

서울은행(16508-2945601)

백예인

신한은행(394-01-000694)

안숙경 지영숙 황규선

외환은행(141-22-00799-6)

김중배

제일은행(225-20-385050)

김남인 김연화 양송이

조흥은행(367-01-192434)

고길만 김성희 김순덕 심경연 이상미  
이호기 장세희 전해원 홍정흔 임은진

주택은행(488401-01-001485)

김경숙 한의수

축협(043-11-13275-816)

하나은행(144-121835-00105)

김은숙

한미은행(100-59711-251)

한빛은행(112-04-112571)

황은아 원용욱 노준철 우미자 허윤순 김민호 김혜  
하유빈 권지은 백예인 김인수 정주현 정경호 임채현  
정태시

우체국(012989-01-000345)

김미혜

◆천사백 후원자님께 알립니다.

1. 자동이체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후원금이 더이상 이체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 신규후원자가 늘어남에도 전체후원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은행에 직접 가셔서 자동이체 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 주소 또는 은행, 구좌수가 변경되신 후원자께서는 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3. 12월 6일 조흥은행통장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조진용님은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 모음터

## ◆사랑의 헌혈증서 (2000. 9. 1. ~ 2000. 11. 30.)

고은주(6)	곽신희(2)	김미정(5)	김성덕(3)	김성순(90)	김찬호(3)
김현지(2)	박정희(8)	박찬범(15)	석범창(101)	성권례(1)	양정철(1,000)
여영주(4)	오태세(7)	이일임(2)	이지은(231)	정권영(1)	정득환(15)
정재웅(21)	조순권(12)	주순옥(1)	한홍수(2)	현하욱(15)	홍순관(1)
황의순(5)	성광감리교회	선한이웃(85)	(주)태평양(350)	(주)BTC정보통신(8)	
63시티	헌사랑회(73)	낮은올타리	독자분들(27)		

## ◆특별 후원금

2000년 9월 한국 루슨트 테크놀로지스(주) 신규통신사업부 3,000,000  
 (주)데이타닉스 2,000,000  
 10월 계명의대 소아과 300,000  
 11월 서화산방 1,018,000 베스트베이비 2,087,000

## ◆후원물품 (2000. 9. 1. ~ 2000. 11. 30.)

故 김승휘모 김치(4), 양말(453)	남기철 컴퓨터하드	유정아 문구류
박찬준 휴지(3box), 세탁비누(40), 세제(10), 치약(10)		한상금 문구류(12box)
박경호 세제(1), 치약(15), 세수비누(14), 섬유유연제(4)		차효주 환자용 위생패드(14)
박찬중 세제(3), 휴지(4box), 치약(20), 삼푸(12), 세탁비누(32)		박태진 세제(1)
진승림 노트(20), 연필(20), 지우개(2set), 휴지(4)		홍정수 장난감(7set)

제일생명의 집에 머무르는 어린이와 어머니들을 위해 매월 사랑터(봉사모임)에서 식료품을, 우리마을(사장 양정철)에서 불고기와 김치를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 ◆물품 후원 안내

후원회는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후원회가 운영하는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는 후원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제일생명의 집 : 세제, 비누, 치약, 휴지, 고춧가루, 왕소금, 각종 조미료  
아동용 교육비디오 및 도서
- ▷ 경희의료원 부모모임 : 프린터

**₩** 윌화이드코리아 주식회사 에서 제작지원에 주셨습니다.

발행인/송상현 발행처/백혈병어린이후원회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766-7671 ~ 3 팩스 : 766-7674 제일생명의 집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766-7671)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012989-0019486(우체국) 090-000260-04-015(기업은행)  
 001-01-2353-890(국민은행) 029-01-176943(농협) 7607451(은행지로) 예금주 : 백혈병어린이후원회